의안번호	제 25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9월 일 (제 294 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발 의 자	정지숙 의원 외 9인
발의연월일	2010년 8 월 26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5

제안연월일 : 2010. 8. 26.
발의자 : 정지숙, 임헌경, 이광진
김희수, 유완백, 황규철
윤성옥, 박종성, 최병윤
김영주

□ 주 문 : 별첨 "결의안"과 같음

□ 제안이유

○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한국인 및 아시아 국가 여성들의 위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래로 유엔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자 한·일간의 중요안 현안임.

○ 충청북도 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 하루속히 일본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함.

□ 보낼 곳

○ 청와대,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국회, 주한 일본대사관

별첨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1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충청북도의회는 세계 제2차대전 기간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한국인 여성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성노예화 했던 참혹한 인권 유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20여년 이상을 활동해 온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의 장구한 노력을 적극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미국 등 세계 각국 의회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사항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2008년 3월 일본 다카라즈카시의회를 시작으로 일본 14개 시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2008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각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적극 지지한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국제 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는 충청북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충청북도의회는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를 촉구한다.

1.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한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충청북도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공식사과하고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 9. 16.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